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3년 5월 16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 당 자	• 가공식품팀장 • 담당자	유경철 강현재	☎440-2796 ☎440-2799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무인카페·밀키트 판매점 등 336개소 위생 점검 나서 **- 5.16일~23일까지, 무인 식품판매업소 특별 합동 위생 지도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카페, 밀키트 편의점 등 무인 식품판매업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위생 지도·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·안전 이슈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·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.

무인카페, 무인편의점, 밀키트 등 무인 식품판매업소 총 33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, 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·검사도 함께 진행된다.

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▲ 소비(유통)기한 경과 제품 사용·보관 ▲냉장·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

여부 ▲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▲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무인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·감독 수준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.”고 밝혔다.

